



세종한국어 입문



한글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한글을 만든 사람은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은 조선 시대 왕 가운데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가졌고 많은 업적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훈민정음의 창제, 농업과 과학 기술의 발전, 의학 기술과 음악 및 법의 정리 등 수많은 사업을 통하여 민족 국가의 기틀이 확고해졌습니다. 이 많은 일들을 주도한 인물이 바로 세종대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종대왕이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화려한 업적과 그 능력 때문만은 아닙니다. 세종대왕은 백성을 사랑한 어진 왕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은 백성들에게 자주 은혜를 베풀었고 죄를 지은 사람이나 노비의 처우를 개선해 주기도 했습니다.

한글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말을 표기할 문자가 없어서 지식인층에서는 한자를 빌려 표기했습니다. 그러나 일반 백성들은 한자를 배우기가 쉽지 않아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세종대왕은 누구나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해서 훈민정음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유한 문자를 가지게 됨으로써 민족 문화의 기반을 더욱 넓히고 확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1997년 유네스코(UNESCO)는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하여 훈민정음 해례본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였습니다. 또한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와 반포를 기념하여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제정하여 매년 그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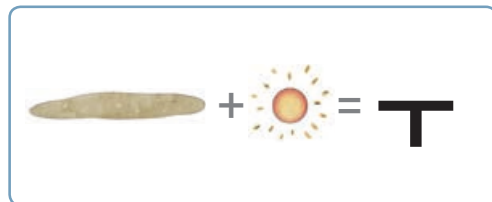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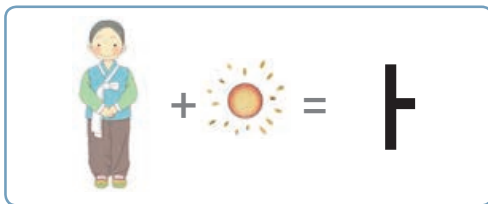
한글은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을까요?

한글을 만든 원리는 상형의 원리, 가획의 원리, 초성-중성-종성의 원리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음은 소리를 내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 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의 모습을 보고 만들었습니다. 기본 모음과 기본 자음을 만든 후 거기에 획을 더해 다른 글자들을 만들었으며 초성-중성-종성이 모여 하나의 글자를 이루는 원리로 만들었습니다. 종성인 받침소리는 새 글자를 만들지 않고 초성에 사용한 글자를 다시 사용하여 복잡함을 덜었습니다.

한글은 모음과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 떠 만들었습니다. ‘·’는 하늘의 둥근 모양을, ‘—’는 땅의 평평한 모양을, ‘|’는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을 본 뜬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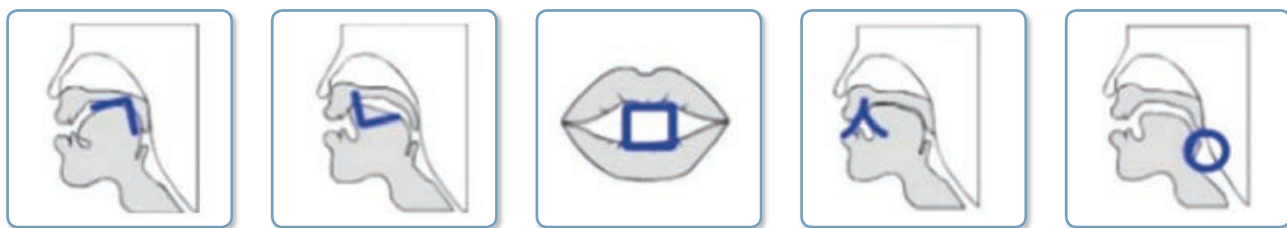
모음은 기본자(·, —, |)를 결합해 네 글자(ㅏ, ㅑ, ㅓ, ㅕ)를 만들었습니다. ‘ㅏ’는 동쪽에서 해가 뜨는 모습을, ‘ㅑ’는 서쪽으로 해가 지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ㅓ’는 땅 위에 해가 떠 있는 모습을, ‘ㅕ’는 땅 아래로 해가 진 모습을 나타냅니다.



기본 모음

ㅏ ㅑ ㅓ ㅕ — | ㅗ ㅛ ㅜ ㅠ

자음은 소리를 내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 떠 만들었습니다. 소리가 나는 기관인 목, 혀, 잇몸, 이 등을 보고 문자를 만들어 글자를 소리 내는 것은 물론 그 방법을 기억하기에 용이하도록 했습니다. 이 원리에 따라 먼저 기본자(ㄱ, ㄴ, ㄷ, ㄱ, ㅇ)를 만들었습니다. 첫소리에서 나는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ㄴ’은 혀가 윗잇몸에 붙는 모양, ‘ㄷ’은 입술의 모양, ‘ㄱ’은 이의 모양, ‘ㅇ’은 목구멍의 모양을 본 뜬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 소리가 센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같은 자음을 나란히 써서 글자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ㄱ → ㅋ

ㄱ + ㄱ → ㄲ

기본 자음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자음의 이름입니다. 자음의 이름은 자음이 처음에 올 때 그리고 받침으로 올 때의 소리를 반영하여 만들어졌습니다.

ㄱ	기역	ㄴ	니은	ㄷ	디귤	ㄹ	리을	ㅁ	미음	ㅂ	비읍	ㅅ	시옷
ㅇ	이응	ㅈ	지읒	ㅊ	치읓	ㅋ	키읔	ㅌ	티읕	ㅍ	피읖	ㅎ	히읇
ㄲ	쌍기역	ㄸ	쌍디귤	ㅃ	쌍비읍	ㅆ	쌍시옷	ㅈ	쌍지읒				



글자는 어떻게 만들까요?

한글은 ‘모음’, ‘자음+모음’, ‘자음+모음+자음’의 구성으로 하나의 글자를 만듭니다. 자음+모음+자음의 글자에서 모음 뒤에 오는 자음을 ‘받침’이라고 하며 ‘자음+모음’의 아래쪽에 씁니다.

글자를 만드는 방식	예
모음	아
자음+모음	ㄱ + ㅏ → 가
자음+모음+자음	ㅎ + ㅏ + ㄴ → 한

한글은 글자를 만들 때 ‘하 나’로 쓰지 않고 ‘한’으로 모아씁니다. 그리고 모음을 기준으로 자음의 위치와 모양이 바뀝니다. 모음이 수직 모양(ㅏ)일 때에는 자음의 오른쪽에 모음을 씁니다. 받침은 자음과 모음의 아래에 씁니다. 반면에 모음이 수평 모양(ㅡ)일 때에는 자음 아래에 모음을 쓰고 받침은 자음과 모음의 아래에 씁니다.

자음 모음 가, 너

자음 모음 소, 무

자음 모음
자음 달, 약

자음 모음
자음 꽃, 춤

또한 같은 ‘ㄱ’이라도 함께 쓰는 모음의 모양에 따라 그 모양새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가 구



함께 해 봐요

다음 자음과 모음을 모아서 하나의 글자로 만들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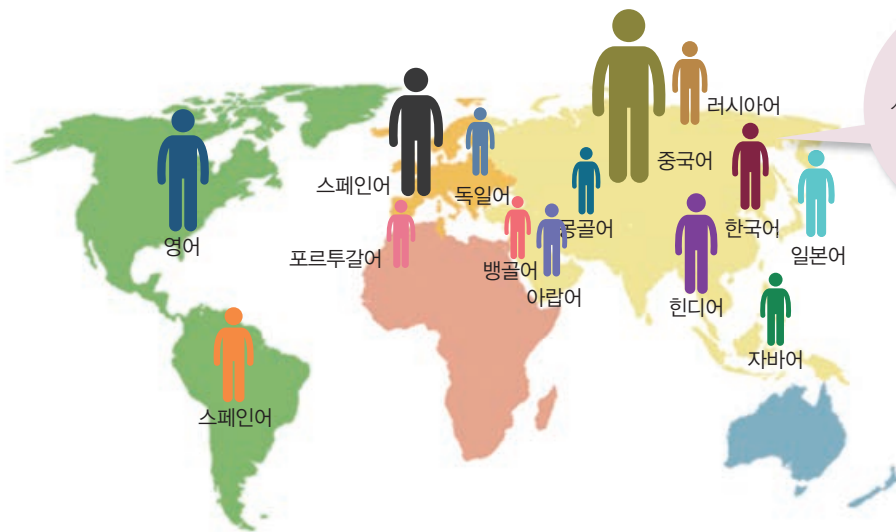
ㄱ

ㅏ



한국어와 한글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한국어는 대한민국의 공용어입니다. 세계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약 7,800만 명으로 한글은 사용 인구 수로 세계 13위를 차지하는 언어입니다.

한국어는 남한과 북한에서 주로 사용되며 가까운 일본, 러시아, 중국 등 세계 곳곳에 거주하는 720만 재외동포들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한국어 인터넷 사용자 수는 세계 10위로 온라인상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K-pop, K-drama 등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글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라서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글을 읽고 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글은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을 이끈 원동력입니다. 한글은 만들어진 이후 학습서, 실용서, 문학 작품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문자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모 배우기

1 모음

한글의 모음은 모두 21개입니다. 10개의 단모음과 11개의 이중 모음이 있습니다.
모음은 위에서 아래로 쓰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씁니다.

1 단모음



	아		어
	오		우
	이		이
	애		에
	외		위

Tip 더 알아보세요!

모음 앞에 'ㅇ'은 소리의 빈자리를 의미합니다. 나중에 쓸 자음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 'ㅇ'을 사용하여 같이 씁니다.

2 이중모음



야	여	요	유
---	---	---	---

애	예
---	---

와	왜	워	웨	의
---	---	---	---	---



아이



오



우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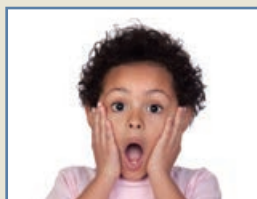


왜



함께 해 봐요

친구의 표정을 보고 알맞은 모음으로 표현해 보세요.





함께 써 봐요

글자 모양	쓰는 순서	연습					
아		아	아				
어		어	어				
오		오	오				
우		우	우				
으		으	으				
이		이	이				
애		애	애				
에		에	에				
외		외	외				
위		위	위				



잘 듣고 맞는 발음을 고르세요.



- 1) ① 아 ② 오 ③ 우
- 2) ① 이 ② 애 ③ 위
- 3) ① 어 ② 으 ③ 에



함께 써 봐요

글자 모양	쓰는 순서	연습					
야		야	야				
여		여	여				
요		요	요				
유		유	유				
얘		얘	얘				
예		예	예				
와		와	와				
왜		왜	왜				
워		워	워				
웨		웨	웨				
의		의	의				



단어를 읽고 쓰세요.

아	이	아	이				
우	유	우	유				
왜	왜						
워	워						

2 자음

한글의 기본 자음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로 모두 14개입니다.

‘ㄱ, ㄷ, ㅂ, ㅅ, ㅈ’에 같은 자음이 하나씩 더 붙어 ‘ㄲ, ㄸ, ㅃ, ㅆ, ㅉ’을 만듭니다.

1 자음(1)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ㄱ’은 [g]나 [k]와 소리가 비슷하지만 자음의 위치에 따라서 소리가 다릅니다.

고기

가장 처음에 나오는 ‘ㄱ’은 [k]로 발음하고 그 다음에 나온 ‘ㄱ’은 [g]로 발음합니다.



함께 써 봐요

글자 모양	예시	연습			
가	가	가	가	가	가
나	나	나	나	나	나
다	다	다	다	다	다
라	라	라	라	라	라
마	마	마	마	마	마
바	바	바	바	바	바
사	사	사	사	사	사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자	자	자	자	자

Tip 더 알아보세요!

자음만으로는 소리를 낼 수 없어요. '아' 모음을 붙여서 읽어 봐요.



구두



나무



모자



머리



바다



버스



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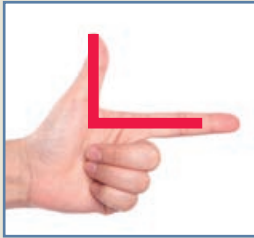


야구



함께 해 봐요

친구와 함께 손가락으로 자음을 만들어 보세요.



함께 써 봐요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ㄱ	가	거	고	구	그	기	개	게	괴	귀
ㄴ	나									
ㄷ	다									
ㄹ	라									
ㅁ	마									
ㅂ	바									
ㅅ	사									
ㅇ	아									
ㅈ	자									

2 자음(2)



ㄷ ㅋ ㅌ ㅍ ㅎ

Tip 더 알아보세요!

발음을 할 때 입 밖으로 공기가 많이 나오는 자음입니다. 손이나 휴지를 입에 대고 연습해 보세요.

Tip 더 알아보세요!

발음을 할 때 입 밖으로 공기가 나오지 않는 자음입니다. 다른 자음에 비해 음이 높습니다. 목에 힘을 주고 발음해 보세요.

ㄱ ㄷ ㅂ ㅅ ㅈ



기차



티셔츠



피아노



해



토끼



쓰레기



머리띠



뿌리



함께 해 봐요

친구와 휴지를 사용해서 자음(2)을 발음하고 어떤 자음인지 맞춰 보세요.

ㄷ

*휴지의 움직임을 잘 살펴보세요.

🔄 단어를 읽고 쓰세요.

구	두	구	두				
나	무	나	무				
버	스	버	스				
아	기	아	기				
지	도	지	도				
기	차	기	차				
포	도	포	도				
커	피	커	피				
토	끼	토	끼				
뿌	리	뿌	리				

🔄 잘 듣고 맞는 발음을 고르세요.



- | | |
|----------|-------|
| 1) ① 다리 | ② 마리 |
| 2) ① 도끼 | ② 토끼 |
| 3) ① 과자 | ② 사과 |
| 4) ① 바르다 | ② 빠르다 |

3 받침

‘자음+모음+자음’ 구성의 글자에서 모음 뒤에 오는 자음을 받침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자음을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ㅊ, ㅌ, ㅍ) 받침으로 쓸 수 있지만 발음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로 소리가 납니다.

자음 모음
자음

책

자음 모음
자음

물



받침	발음	예시
ㄱ, ㅋ, ㆁ	[ㄱ]	책[책], 부엌[부억], 밖[박]
ㄴ	[ㄴ]	산[산]
ㄷ, ㅅ, ㅆ, ㅌ, ㅍ, ㅎ, ㅎ	[ㄷ]	곧[곧], 옷[웁], 있다[읷다] 낮[낵], 꽃[꼇], 밥[뵵], 히읷[히읷]
ㄹ	[ㄹ]	길[길]
ㅁ	[ㅁ]	삼[삼]
ㅂ, ㅍ	[ㅂ]	밥[뵵], 숲[쑤]
ㅇ	[ㅇ]	강[강]



수박



볼펜



눈



동생



컴퓨터



집



옷



할머니



함께 해 봐요

친구와 다음을 읽고 받침이 있는 글자와 없는 글자의 차이를 느껴 보세요.

오 온 바 방 그 글



글자를 만들고 읽어 보세요.

글자		받침		결합단어	연습			
야	+	ㄱ	→	약				
소	+	ㄴ	→	손				
마	+	ㅅ	→	맛				
나	+	ㅈ	→	낫				
꼬	+	ㅊ	→	꽃				
바	+	ㄹ	→	발				
추	+	ㅁ	→	춤				
다	+	ㅂ	→	답				
수	+	ㅍ	→	쇼				
혀	+	ㅇ	→	형				



함께 해 봐요

친구와 함께 바르게 쓴 글자를 찾아보세요.

1)

한글 하 나 기 - 리

2)

한글국어 한국어

3)

누 라 나 라



다음 단어를 찾아보세요.

① 나라

② 직업

③ 회사

④ 전화

⑤ 운동

⑥ 계절

⑦ 가족

⑧ 공원

⑨ 취미

⑩ 영화

⑪ 날씨

⑫ 과일

나	책	직	업	해	아	전	화
운	라	형	날	씨	가	족	취
동	계	절	영	철	회	적	미
공	원	리	딸	화	사	과	일



한국인의 다양한 글씨체

우리나라

밥

수업

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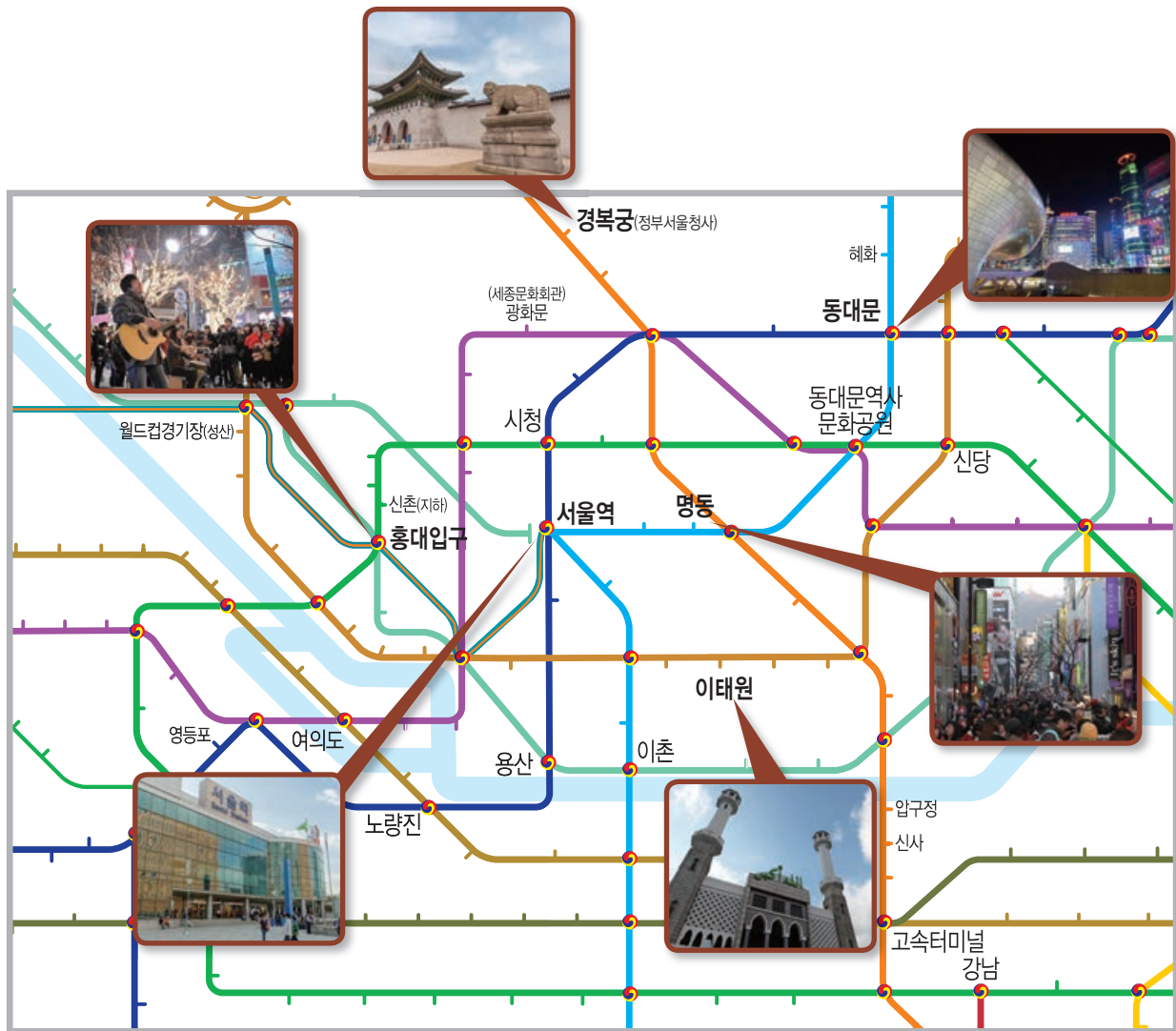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함께 해 봐요

서울 지하철 노선도입니다. 친구와 함께 역 이름을 읽어 보세요.





함께 해 봐요

지금까지 배운 자모를 사용해서 자신의 이름을 써 보세요.

Anna	→	안나
	→	

3 띄어쓰기와 연음

1 문장을 쓸 때에는 단어와 단어 사이를 띄어 씁니다.



저는 V 운동을 V 좋아해요.

2 받침이 있는 단어의 끝소리 뒤에 모음이 오는 경우 받침이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됩니다.



할아버지 → [하라버지]



동생이 있어요. → [이써요]



읽어 봐요



태극기



무궁화



태권도



한글



김치



서울



한옥



한강



한복



인사해 봐요





교실에서 사용하는 말



잘 들으세요.



읽으세요.



따라 하세요.



쓰세요.



여기 보세요.



이야기하세요.



조선 제4대 세종대왕(재위 1418~1450년)은 백성들이 말은 할 수 있어도 글을 알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세종 25년(1443년) 12월에 집현전 학자들을 중심으로 한글 창제에 힘썼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고유 문자이며 표음 문자인 한글을 만들고 세종 28년(1446년)에 <훈민정음>을 반포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말소리가 중국과 달라서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않고 일반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펼 수 없는 사람이 많도다. 이를 딱하게 여기어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드니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 나날이 쓰기에 편하게 하고자 한 것이니라.”

—훈민정음 언해본—



한글 창제와 반포에 대해 당시에는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세종대왕은 한글로 된 최초의 노래인 ‘용비어천가’를 짓는 등 한글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글이 점차 보급되면서 서민들은 생각과 뜻을 글로 적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백성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으며 편지 등을 쓸 때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한글이 활용되면서 서민들의 생활 개선과 의식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한글은 17자의 자음과 11자의 모음인 28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글의 제자 원리는 기본적으로 상형과 가획입니다. 상형은 모양을 본 떠 글자를 만든 것이고 가획은 글자에 획이나 점을 더하여 다른 글자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자음의 다섯 개 기본 자(ㄱ, ㄴ, ㄷ, ㄹ, ㅇ)는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들었습니다. 첫소리에서 나는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ㄴ’은 혀가 윗잇몸에 붙는 모양, ‘ㄷ’은 소리 낼 때 마주 붙는 입술의 모양, ‘ㄹ’은 이의 모양, ‘ㅇ’은 목구멍의 모양을 본 뜬 것입니다. 이 다섯 개의 기본 자에 가획하여 ‘ㄷ, ㅈ, ㅊ’과 같은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소리의 거센 정도에 따라 획을 추가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같은 글자를 병서해서 ‘ㄱ, ㅋ, ㆁ, ㆅ, ㆆ’과 같은 자음도 만들었습니다.

또한 모음은 하늘(·), 땅(ㅡ), 사람(ㅣ)을 본 떠 만들었습니다. ‘ㅏ’는 하늘의 둥근 모양을 ‘ㅗ’는 땅의 평평한 모양을 ‘ㅣ’는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을 본 뜬 것입니다. 이에 점과 획을 더하여 ‘ㅑ, ㅓ, ㅕ, ㅗ’를 만들었고 다시 점과 획을 더하여 ‘ㅛ, ㅜ, ㅠ, ㅡ’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글자들은 다시 초성, 중성, 종성으로 조합하여 하나의 음절을 만들었습니다. 종성인 받침소리는 새 글자를 만들지 않고 초성에 사용한 글자를 다시 사용하여 복잡함을 덜었습니다.

한글은 그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훈민정음 해례본이 1997년 유네스코(UNESCO)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또한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와 반포를 기념하여 한국에서는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제정하여 매년 그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